

#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7  
Jul. 2015  
Vol.3 No.7

- 여름성경학교(VBS)
- 단기선교 준비모임
- 주안예살 증강
- 구역&사역국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VBS

## 예쁜 몸짓으로 하나님 찬양... 즐거운 천국잔치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VBS(여름성경학교)입니다. 2015년 우리 주안예교회에서는 6월 28-30일(밸리채플) 7월 9일, 12일(세리토스채플) "EVEREST" 라는 제목으로 "Conquering Challenges With God's Mighty Power"라는 주제로 VBS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분과 함께라면 그 높고 추운 얼음산이라 할지라도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감히 도전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직 위대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분의 놀라운 파워에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시간에 우리 아이들 모두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똥똥해도, 뻐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을 아예쁜 몸을 음악 (My God is Powerful)에 맞춰 이리 저리 흔들었습니다. 또한 Youth Group 아이들의 땀범벅으로 준비된 찬양과 율동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로 꽉 채워주신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준비했던 인형극에 아이들의 너무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형의 대사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또는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꿈나무 아이들은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흐트러지거나 장난을 치는 아이는 보이지 않고 때론 웃고, 때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 완전히 동화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역시 위대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했구요. 예배 후엔 그룹별로 가졌던 크래프트, 성경공부(퀴즈), 게임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시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Almighty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VBS 3일이었습니다.

또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사 각 자의 맡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사로, 찬양과 율동으로, 인형극으로, 저녁과 간식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VBS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한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모든 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임을 고백하며 내년 VBS에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깨끗하고 맑은 심령을 두드리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련화보 7면)

| 박희정 기자 |



■ 멕시코단기선교 준비모임

##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안예교회 선교국에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멕시코 상하신토지역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계획도 삶의 소망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선교는 준비되었다.

선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멕시코 단기선교는 준비되고 진행될 것이다. 선교도 구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4,15)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구원에 있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선교지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슴앓이하며 사랑의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우리 주안예교회가 개척되고 오늘까지 달려 오는 동안 소규모나 개인적인 선교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사역국이 중심이 되어 교회적으로 선교가 준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하는지 열악한 저들의 삶은 어떠한지,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필요한지를 경험하며 저들을 마음에 품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2세 자녀들이 선교지를 경험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왜 내가 큰 뜻을 품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시키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귀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는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며 준비 시간도 많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역해야 할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들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 김경일 기자 |

■ 한어청년부 예배

## 청년의 때 주님의 비전을 품고 뜨겁게 경배

7월 5일, 코람데오 청년부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청년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리토스에 있는 코람데오 청년들뿐만 아니라, 벨리의 청년들도 벨리에서 본 예배를 드리고 세리토스에 내려와서 청년부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격의 코람데오 청년부 첫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후 대표기도는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혜림 간사가 했고, 광고는 최우리 간사가 했습니다. 각 채플의 광고뿐만 아니라 7월 생일을 맞은 청년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람데오 첫 예배의 말씀은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6과 27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경건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매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거스르

지 않는 청년들이 되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15분 정도의 말씀 시간에 이어 기도 해주신 후, 새가족부 팀장으로 섬기는 정지혜 간사가 처음 주안예교회에 온 새가족을 소개한 후에 주기도문을 마지막 순서로 첫번째 코람데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안예교회 청년부 코람데오 예배는 앞으로도 매주 오후 2시에 계속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고 마음에 품으며, 서로 하나 되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안예교회 코람데오 청년부가 더욱 부흥되며, 청년들의 예배가 이어지고 풍성해져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어청년부 김혜민 자매 |

■ 교구탐방



▶ 벨리 4교구

### "받은 은혜 간증, 끈끈한 유대"

15번 프리웨이 인접한 곳에 작은 불이 나서 잡초를 태우고 있어 우회도로를 타고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교구가족들이 모여 각자 한가지씩 음식을 장만하여 저녁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각종 산해진미를 모아 함께 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윤종화 장로댁의 넓은 거실이 좁아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다음 주 금요일예배에 있을 교구 찬양연습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4교구는 발렌시아에서 시작하여 멀리 랭캐스타, 팜데일까지 길고 멀리 이어진 지역이어서 교구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힘든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교구이다.

1구역 이상숙 장로는 "여러 장로님도 계시고 층이 다양합니다. 저희 구역은 새벽에 큐티를 공유하고 카톡으로 그날 은혜 받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있으며 건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의 구역입니다. 연령층이 다르지만 서로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나누고 세분 장로님들이 계시서 권면을 잘 듣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현선 권사는 "하나님 안에서 유대관계가 튼튼한 구역"이라고 하였다. 이필재 장로는 "이상숙 장로님이 구역장으로 구역원 잘 인솔하고 무엇보다 단합하여 모든 사역을 하고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구역장님과 함께 칭찬 받는 구역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석원 2구역장은 "대부분 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모여서 단결이 좋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가 한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집사는 "식사당번이 될 때면 함께 봉사하고 맨파워가 넘칠 정도로 열심히 하고 협조가 잘되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 3구역장 노재덕 집사는 "구역원 모두가 유대관계가 좋아 가까이 지내며 어려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끈끈한 한 이웃이면서 형제처럼 아름다운 관계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현선 집사는 "저희 3구역은 찬양을 잘하고 구역전체가 성가대로 헌신하고 있으며 저는 반주자로 남편은 총무로 구역원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역원인 김성한 집사는 "저희 구역장은 바른 길과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였다.

3구역의 모든 구역원이 임마누엘 성가대로 열심히 헌신하는 구역으로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찬송이 울려나길 소원한다. 또한 4교구의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삶 속에서 믿은 데로 순종하는 교구 표어와 같이 모든 교구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대하여 본다.

| 공태용 기자 |



▶ 세리토스 8교구

###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8교구 합동 구역 예배가 조성운, 근희 집사님 집에서 모였습니다. 세리토스 8교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구'라는 표어와 함께 교구장 정세화 장로, 정영주 권사, 1구역장 황동성, 황은숙 집사, 2구역장 이 에스더 권사, 3구역장 조성운, 조근희 집사가 봉사하고 있으며 교구예배에 20여 명의 교구 식구들이 모였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구'라는 표어답게 교구원들이 모두 사랑을 듬뿍 가지고 와서 사랑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음식도 모든 교구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와! 음식 솜씨들이 대단하네요. 무슨 음식 경연대회 같았습니다. 테이블 가득히 차려 친 음식이 풍성을 넘어 화려했습니다. 거기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께서 비싼 고기를 20파운드 넘게 가져오신 겁니다. 온 교우들이 달려들어 고기를 자르고 양념도 하고, 안에서는 오븐과 프라이팬에서 굽고 밖에서는 가스 불에도 굽고 하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 2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주안예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음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교구 식구들이 모여 앉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인도는 이미란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말씀은 '용서'를 주제로 해주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본인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 나누어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는 육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제일 수고하신 황동성 집사님의 고기 굽는 솜씨는 넘버원입니다. 항상 교회의 굿은일을 남모르게 열심히 하시는 황 집사님께서 교우들을 위해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셨습니다. 너무나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교구가 자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남 조이스 권사님의 60회 생일이거든요. 환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권사님께서 섭섭하다고 떡을 한 접시 가득 준비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하는데 미안하네요. 온 교우가 모여 권사님을 사랑하며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찬을 나누고 이어서 교구 찬양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인범 장로님의 인도로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를 연습하였습니다. 찬양 연습을 마치고 전도국장인 황동성 집사님께서 전도프로그램인 가슴앓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며 전도에 대한 교회의 방침과 방향,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8교구 형제, 자매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 조성운 기자 |

■ 셋업팀 (세리토스채플)



## 성도들의 예배와 섬을 위해 구슬땀 "힘들지만 행복"

함께 호흡을 맞추며 봉사해온 흔들림 없는 동지들, 세리토스 채플 셋업국 팀원들이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헌동심과 책임감으로 곳곳을 해내고 있다. 물론 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역에 충실하기는 다른 사역국 봉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호엔 특별히 음지에서 땀 흘리며 오랫동안 수고해온 세리토스 셋업국을 취재하였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였다. 이 멤버들의 특징 손발이 척척 맞다는 것이다. 셋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아침 7시 30분에 모여 기도로 시작, 9시엔 셋업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된다. 셋업팀 중 일부는 셋업 후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에 출석한다.

매주 세리토스 채플에는 예배당 앞에 여러 채의 천막이 한 눈에 들어온다. 빨리채플 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교인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이 늘어져있는 부스가 정면에 배치된 성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런 첫 장면은 영락 없이 개척교회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금쯤이면 믿음의 자부심으로 뽕뽕뽕 교인들 스스로도 개척교회라는 딱지를 떼고 싶어 하겠지만 세리토스 채플 만큼은 전통교회에선 보기 드문 하드웨어적 풍경이 아직도 그런 느낌을 일으키기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그 천막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심장하다. 임시 설치된 천막들은 부족한 공간인 친교실, 식당 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야외에서 오손도손 식사하며 화기에애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은 바람은 통하나 뜨거운 햇볕의 열기는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아니한가! 말지않은 훗날 우리의 예배당이 마련되면 우리 이 천막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업국은 바로 이 행복표 임시 천막을 설치하는 막중한(?)작업을 맡은 부서이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 전에 끝나야 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이들에겐 단순 노동의 일이지만 예배를 돕는다

는 보람과 자부심이 있다. 봉사인원이 채워지면 더 빨리 더 쉽게 할 수 있다. 교회의 몸인 우리 지체가 한 부분이 없으면 흔들리는 현상의 축소판과 같다.

첫 순서는 물론 기도다. 7월 마지막 주일은 이미란 전도사가 예배와 셋업팀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어서 육중한 Blower를 등에 둘러멘 머슬맨(김경일장도)이 교회 앞, 정면, 측면 주차장, 천막 설치 장소 가릴 것 없이 살살이 바람을 일으켜 먼지, 낙엽, 쓰레기들을 사정없이 말끔히 퇴치시킨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불어내는 실력은 어디서 쌓았는지 기자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그동안 다른 멤버들은 장비와 각종 기물들을 컨테이너 보관함에서 꺼내어 설치장소까지 운반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일조차도 숙련을 요한다. 다량의 접이식 테이블, 의자, 각종 철제 시설물을 설치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다음은 텐트 설치순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 6명이 달려붙어 지붕역할을 하는 천막을 고정한 후 이를 버팀 철제 파이프에 꼽아 세운다. 천막들이 세워지면 테이블과 의자를 퍼서 셋업을 마친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이른 아침 텅 빈 교회에서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 자신들도 쉬어야 하건만 교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땀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자는 미안함, 고마움, 애처로움이 한꺼번에 솟아남을 제어할 수 없었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생활의 이동성마미 실감나게 느껴진다. 그들도 이동을 멈추면 천막을 쳤을 것이고 떠날 때가 되면 거두었을 것이다. 그 힘든 일을 마다하고 수고한 자들이 바로 우리 셋업팀 멤버같은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남을 위해 희생으로 봉사하며 헌신된 마음을 갖춘 사람들, 그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셋업팀 멤버같은 사람들이었 것이다. 초대 셋업국장을 맡았던 유공재 장로는 팀원을 대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

는 해야 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설치된 공간에서 교인들이 편안히 쉬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현 셋업국장을 맡고 있는 유공재 집사 외 팀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을 전한다. “전에는 팀원들 대부분이 너무 일찍 일어나 땀흘리는 일을 해서 예배시간에 졸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시간 늦어져서 덜한 편입니다.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때(교회이전)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채로 겸손하게 말하는 그들이 너무나 멋있고 든직하게 보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셋업팀에서 빛나고 있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세리토스 셋업팀이라는 지체에 힘을 보태야 하겠다. 성도들의 아낌없는 동참과 협력을 기대하며 세리토스 셋업국 파이팅!!!! 우리예배당이 곧 준비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 서세건 기자 |

**The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한인 기독교 상담소**

심리상담 · 가정상담 · 부모/가족 상담 · 다문화/청소년 상담  
· 장년자들을 위한 특강 · 목회자/교회사역자 회보 그룹 상담

**무료 마음건강 예비 교육**

- **특강 세미나** - 스트레스와 위생관리/ 대인관계/ 중독/ 부모교육/ 우공과 자립/ 교회에서 진신건강예배
- **소그룹 워크샵** - 자녀양육/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이민과 다문화 상담회소 동료상담/ 분노조절/ 속죄지 성신권 강 권유/ 침신권 강 연식중전/ 지자 그룹
- **홍로교육** - 성직자/ 수매장/ 일과목-약물중독/ 우울과 불안/ 성신문예/ 지참예배/ 가정폭력

**8월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소그룹워크샵**  
“공복이만” 8/13-9/3, 매주 목(10:30-12:30pm),  
장소: 캘리포니아대학교  
Tel) 213-738-6930, [www.kaccda.net](http://www.kaccda.net)  
500 Shatto Pl. #507, Los Angeles CA 90020

■ 중고등부 수련회 간증

## Wonderfully Made

I, myself, know that I cannot give much compared to how much he did for me. God's love is greater than any other. But I wasn't able to understand how much he loved, and still loves me. In the midst of my struggles I felt that he wasn't there, that he didn't care.

But all along he was by my side, and he never let me go through it alone. But why is it that you tell us we're perfect? How can we feel perfect when you are the ALMIGHTY God, who is perfect in every single way? We don't even compare to you, yet you make us feel loved. We feel your grace and mercy through our very souls EVEN THOUGH we know that we don't deserve it at all. Nada. Zero.

But I personally think that is why he is such a wonderful God. A jealous God that cares, loves, and tells us we are perfect because we were made in his very hands. Shaped and cared for. Made without a single mistake. Sometimes, I feel like every single part of me is a flaw. But you see, compared to God, I am a complete flaw. I don't have just one flaw. But every single part of me is a flaw.

However, God looks past my flaws, and sees the very good in me. That very good thing is His blood, the very same blood that he shed on the cross. THAT is why he loves me. Because even though I don't deserve His grace and mercy, I love him. He understands that I make mistakes, and that I can't be perfect even if I wanted to be. But he tells me, I AM his daughter, I AM loved, I WILL love, and I DO love.



Jane Ma



## Passionate Unity

Coming to a new church in ICCC, it was hard for me to call this place home. Especially after all the memories, friends, teachers, and pastors that I had left behind at my old church. I had trouble getting along with anyone and overall, church had turned into a painful waste of time. I maintained that attitude throughout the year coming and leaving right after Sunday services and never attending church events. Naturally, I grew distant from God. The Summer Retreat was announced, but I didn't care since I wasn't going to go... was what I thought. At the last minute I had a change of heart since I was bored out of my mind at home during my Summer Break. The entire bus ride I was filled with contempt. Why am I even going to this waste of time and money? Why is everyone so loud when I want to sleep?! My cold and insensitive heart remained through the first day of the retreat.

On the first night as I walked to the restroom from my room, I overheard some screaming from the main room. I leaned in a little closer and it was the sound of prayer. The leaders were screaming in prayer. It was very intense and awkward for me as I pretended that it wasn't what I thought it was. The next day we had all gathered in the main room to have our noon service and as all the kids chatted and settled down I heard screaming again. At the front of the room was the worship team screaming in prayer. I was confused and uncomfortable. So I decided to pray. God... please just let me experience that kind of passion and joy.

I didn't think much of my prayer as I always had, they were just words I spoke. Next thing you know everyone is screaming out the worship songs with their hands lifted. Tears are falling, students are falling down on their knees in prayer, just a night filled with passion for God. God's presence was truly there and it could most definitely be felt. I worshipped my heart out. Trying to hit high notes that

I would never try because I'm horrible at singing, lifting my hands up, and just having so much fun worshipping. After the service, all I could do was shed tears. God had answered my prayer... Me. The same kid who had turned away from him all year.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I felt as if God was with me and that I could put all my faith into him. That night, God touched the hearts of many of the students and being able to talk with my brothers in small group and witness the changes occurring not only in me, but in other students was a blessing.

It also helped me realize that the whole time I was at ICCC, I had all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around me at ICCC, but I was too stubborn and proud to talk and get to know them. The retreat from that moment on was all about bonding with as much people as I could, building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having fun. The third night of retreat came and the same passion and joy filled the worship room. Instead this time, all I could do was fall on my knees and cry. These tears were not tears of sadness, but tears of joy and awe. God had shown me so much at this retreat so far and I was extremely thankful that he accepted me with open arms when I called for him. No matter how distant we may get from him and how much sin we may indulge in, God is always waiting for us with open and loving arms.

I am truly thankful to have been able to be at this retreat and experience our merciful and loving God. It was unforgettable and will certainly stay engraved in my mind. It's a shame that I won't have much time to spend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at ICCC, but I will wholeheartedly love you guys with all my heart forever!



Chris Choe

■ VBS



'마이티 파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워요...



■ 주안예술통증강 소감

## "침체된 믿음 생활에 새 활력이 넘쳐요"

우리 주안예교회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은 배우고 훈련함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훈련원이 주관한 '주안예술통' 양육훈련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7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인도자 12명(세리토스 5명, 벨리 7명)의 섬김과 함께 59명의 수료자를 배출(세리토스 24명, 벨리 35명)하였으며, 수료자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도 많고 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인도해주셔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공부한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나감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되었습니다. 김영기 장로(1권)

일을 마치고 LA에서 트래픽을 뚫고 달려가 공부했습니다. 육신은 피곤했지만 영은 날아갈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도자 김태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권 공부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문수경 집사(2권)

좋은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안 침체되어 있던 믿음 생활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배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성경 한 권을 모두 쓰신 이경희 집사님에게 도전을 받아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김제니퍼 성도(3권)

학생들이 매주 내 주시는 소감문에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인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신앙에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특히 나눔이 풍성했고 이분들이 보여주실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한유리 사모(3권 인도자)

있고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숙애 권사(1권)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주안에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현 집사(2권 인도자)

게으름에 많이 미루다가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만규 집사(3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실천할 수 있었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인도자, 그리고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권사(1권)

너무 기초적이고 쉬운 주제들이었지만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인범 장로(1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김명희 집사(1권)

너무 귀하고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주안에 삶을 함께 공부하는 동안 훈련생의 입장으로 돌아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국민 전도사(1권 인도자)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취질 못된 점과 부족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원 집사(2권)

은 생애동안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경희 집사(3권)

주안예술통을 통하여 나의 지난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며 재검증하는 시간들은 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성근 집사(3권)

주안예술통을 배우는 시간들은 제 삶에 어느덧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배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활 집사(3권)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보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다시 시작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를 해주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복남 집사(3권)

6주간이라는 짧고도 쉽지 않았던 시간을 드리면서 배웠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이 아닌 경험으로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복 집사(3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인도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주안에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숙 장로(3권)

믿음으로나 나이로나 무엇으로 보아도 훈련생들에 비해 너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감싸주시고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원근 집사(1권 인도자)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이 약하신데도 열심히 인도해 주신 인도자에게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7주 동안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안장호 집사(3권)

주안예술통 공부를 통해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었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운선 집사(1권)

인도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이번 기에는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훈련생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승환 집사(3권 인도자)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남

주안예술통 2 권을 배우면서 여러 분들의 진솔한 share 은 저의 마음을 만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누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노력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힘이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마숙 집사(2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6주간의 주안에 삶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시한번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어 말씀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매주마다 느끼며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창신 집사(2권)

저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어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주간의 풍성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은혜가 감사하고 끝나고 보니 듣고 나누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덧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안진호 집사(2권 인도자)



■ 주안예살 증강 소감

##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하시고 신실하신지를 알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임혜신 집사(2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 나의 삶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에서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하며 기쁨과 감사로 풍사를 마칩니다. 이현선 집사(3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볼때 새삼 깨달았던 은혜들이 소중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풍요로움을 알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정유정 집사(3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예리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문효선 집사(3권)

풍요로운 삶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믿음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말씀이 밑거름이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실 집사(3권)

하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이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귀한 간증과 교제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동안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세희 집사(3권)

풍사를 통해 나의 신앙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싶은 소원과 갈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몸소 본이 되어 살아가신 그 길을 저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불빛 이십니다. 조현정 집사(3권)

조금은 나태해졌던 신앙생활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큼니다. 권상복 집사(3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의 삶에 말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며 굳은 결심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준 고마운 공부였습니다. 홍영표 집사(2권)

은혜, 은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웅 집사(2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간절함,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은혜가 감사하며 이 좋은 것들을 세상에 아직도 참 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윤스티븐 집사(2권)

저에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참 유익이었습니다. 이 유익이 나의 삶에 열매로 맺어지도록 노력 하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향하여, 내 일상에서, 또한 순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넘쳐나므로 나의 삶이 더욱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랄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감이 감사합니다. 홍영주 집사(2권)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 받아 이제는 성화되까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게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전혜숙 집사(2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씀이 떡이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처럼,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을 먹고,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하며 소망을 주께 두며 살겠습니다. 윤미라 집사(2권)



순간마다 배운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윤상현 집사(2권)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건, 상황들을 만나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면서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광영 집사(2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성숙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도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나 자신을 보며 많은 것들을 점검도 해보고, 도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지 집사(2권)

왕언니 집사님들과 함께 6주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매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왕언니 집사님들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 행복합니다. 박희정 집사(2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많은 풍요로운 간증과 기쁨의 열매들을 보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규실 집사(2권 인도자)

매주 연결 되는 성경공부의 내용과 결론은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풍사에서 나누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은 나의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냥 앓았다 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생생하고, 또 인상적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재덕 집사(1권)

신앙 생활 해오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체계적인 성경공부였습니다. 처음 공부한 성경공부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해온 신앙 생활보다 앞으로 해 나갈 신앙생활의 좋은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김승환 집사(1권)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과 한 시간들 속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간증이 되어 내가 감동을 받았듯이, 누군가에게 나의 간증이 감동이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집사(1권)

정리: 조성은 집사, 이하나 집사



■ 문학과 삶

"늘어나는게 아니라 익어 가는... 그대가 함께라서"

가히 국민가요로 애창되는 <만남>을 발표한 지 7년 만에 노사연의 꾸밈없는 굽직한 목소리로 읊어내는 김종환의 <바람>은 이미 30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한번쯤은 카톡으로 받아보았음직한 이 노래는 한 가족의 영상으로 그려진다. Video는 한 쌍의 결혼하는 부부의 구두를 조명하면서 “30년이 흘렀습니다”로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며, 밥상을 차리며, 힘겨웁게 가족이란 짐덩어리를 끌고가며... 정신없이 세월은 흘렀고, 그러던 어느날, 덩그러니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중년의 여자가 영상에 나타난다. 참 외로워 보인다...  
여기 그려진 한 인생이야기를 보노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가슴 뭉클한 세월의 무게감과 외로움을 위로하듯 음률이 흐르면, 나 역시 하던 일을 멈추고 철퍼덕 주저앉아 한구절 한구절을 가슴으로 안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손이 아플만큼 그리도 움켜 쥐려고 했거늘 내게 남은 건 무언가? 등짝이 빠근하도록 짊어지고 온 나의 삶의 무게가 내게 남겨준 건 과연 무언가? 참 버겁고 힘들었다... 사는데 팔려서 나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왔구나. 문득, 아주 문득,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라는 표현에 가슴이 아리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애길 조금만 들어 줄 그런 짝이 내겐 있는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내겐 있는지... 아니, 꼭 배우자가 아니라도 친구여도 좋고, 자식이

**바 램    김종환**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땀에 내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애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날 갑자기 세월에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조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다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뿐입니다

건 하물며 이웃이어도 좋겠다.  
생각할수록,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뭐 그다지 대단히 값비싼 선물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람>이라 제목을 붙였을 터이다. 아주 소박한 우리의 작은 이 바람! 사랑한다는 한마디, 수고했다는 따뜻한 포옹, 고맙다는 정겨운 눈길, 이렇게 작디작은 진심어린 위로의 몸짓에 우린 별똥 떨어날 힘을 얻는다.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게 하신 건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도서 1:2, 14) 이렇듯 우리의 치열했던 삶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쯤이면 허무한 회환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노래의 후반부는 결국은 사랑이 희망임을 전한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면 나는 사막을 걷는 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뿐입니다’ 나의 그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싸웠고, 고뇌했고, 실수도 했고, 실망도 했고, 죽을 만큼 미워도 했다. 마음으로는 수십번도 헤어져 보았고, 빌리그래함 목사님 부인의 고백처럼 몇 번이라도 상대를 죽이고도 싶었다. 그러나, 우리의 알아가는 세월이 30년, 40년, 50년으로 늘어나면 우리는 점점 늘어 초라하고 멀어지는게 아니라, 연륜으로, 이해로, 용납으로 그렇게 노을처럼 곱게 익어가는 것이다. 사랑과 운우와 희락과, 충성과 절제와,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비틀거리며 서로를 지팡이 삼아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나만의 그대여, 이제 지친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 주세요...



서미숙 기자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탕평채/청포묵 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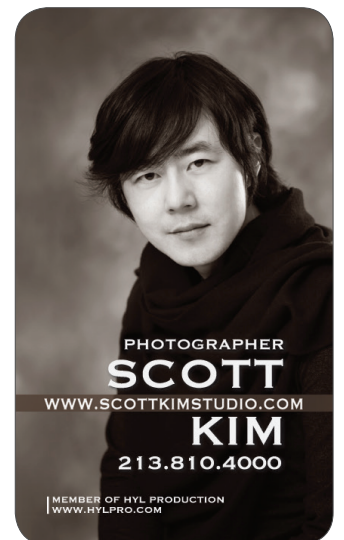
박창신 기자



**탕평채는 조 선왕조 21대 왕인 영조가 당쟁을 바로 잡기 위해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의도로 탕평책을 실시하던 때, 이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에 오르곤 했던 궁중 음식이다. 청포묵의 흰색은 서인을, 쇠고기의 붉은색은 남인을, 미나리의 푸른색은 동인을, 김의 검은색은 북인을 각각 상징했다. 탕평채는 식욕을 돋우면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사 전에 나오는 전채요리로 열량이 적어 채증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 재료(4인분)** 청포묵 1 모 (500g): 밀간 참기름 1큰술, 소금 1/3큰술, 소고기 1/2파운드: 불고기 양념, 미나리 1단, 빨간 피망 1/2, 달걀 2, 김 2장, 양념장: 진간장 2큰술, 매실청 1큰술, 꿀 1/2큰술, 식초 1큰술, 참기름 1/2큰술  
**+ 만드는 법** 1) **청포묵**: 젓가락 굵기와 5cm 길이로 채썰어 투명하고 부드럽게 될때까지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식혀서 물기를 빼고 참기름 1큰술, 소금 1/3큰술로 잘 섞어 놓는다. 2) **고기**: 곱게 채 썰어 불고기 양념으로 밀간하여 볶은 후 식혀놓는다. 3) **피망**: 반으로 갈라 씨와 속을 비우고 곱게 채친다. 4) **미나리**: 잎사귀와 콩지를 자르고 5cm 길이로 자른 뒤 데쳐놓는다. 5)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지단을 부친 뒤 곱게 채친다. 6) **김**: 뜨거운 팬에 살짝 구워서 채친다. 7) 위의 재료들을 양념장과 섞은 후 큰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린다.

교/우/비/즈/니/스



정원 가꾸기

"물을 아끼자... 사막식물로 멋진 마당을"

나형철 장로 (업타운 너서리 운영)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강제 절수가 시행되고 있고 또 각 가정의 정원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 봅니다.

1. 물주는 시간 조절: 화단에는 오전 5-7시 해 뜨기 전에 물을 주는 것이 물의 증발을 줄이기 때문에 절수 효과가 있습니다. 화분은 물이 더 빨리 증발하므로 한낮의 기온이 올라 화분이 물을 필요로 할 때는 이미 많은 양이 증발되어 물이 부족하고 또 화분의 흙의 온도가 너무 많이 상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낮 12시 이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물은 옆에다 뿌리지 말고 뿌리 근처에 주어야 합니다. 옆에 물을 주면 병의 발생이 많고 물이 옆으로 퍼져 뿌리가 흡수하는 양이 적어져 물의 낭비가 많아집니다.
3. 정원에 비치 할 화분 선택: 금속이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질흙으로 된 것 나무 화분이 열 전도가 적어 물이 절약되고 세라믹 화분은

- 유약 처리가 된 것이 좋습니다.
4. 정원수는 잎이 큰 식물보다 잎이 좁은 것이 좋고 짙은 녹색 식물보다는 연녹색 또는 회색 식물, 활엽수 보다는 침엽수가 절수에 효과적입니다.
  5. 정원에 멀치(mulch)를 덮어 줄 것: 멀치는 나무 부스러기나 잡초 말린 것 잔디 깎은 것 등으로 만든 것인데 2인치 정도로 흙을 덮어 주면 물의 70% 정도의 물의 증발을 막을 수 있고 메마른 땅을 개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LA시에서는 멀치를 만들어 11곳에서 무료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하는데 우리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16600 Rosecoe Pl. North Hills 에 있고 수요일, 금요일 7am~6pm에 이용가능하며 삽과 넣을 수 있는 비닐 뺀이 필요합니다.
  6. 물을 적게 주거나 거의 안주어도 되는 식물을 심도록 합니다.
- 가뭄에 강한 식물: 1. 부겐빌리아(Bougainvillea): 상록 식물로 사철 잎과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로 그라운드 카바, 울타리, 분재 저원수로 적합합니다.
2. 로즈마리(Rosemary), 라벤더(Lavender): 허브로 키우고 손으로 쓸쩍 만지면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 때문에 모기같은 해충이 꼬이지

않습니다. 로즈마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향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야로우(Yarrow): 더위와 가뭄에 잘 견디고 토끼가 싫어하기 때문에 물 절약과 토끼 퇴치의 이중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피며 한번 심으면 여러 해동안 계속해서 덩이 다발로 꽃이 피니다.
4. 고라(Gaura): 여름동안 꽃이 피고 키가 1m~2m 정도까지 크고 물이 적은 여름이나 땅에 거름 성분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5. 여러 가지 선인장 종류: 대부분의 선인장은 우기에 물을 흡수하여 두꺼운 줄기 부분에 저장하여 생존하며 한달에 2번 정도 물을 주면 더 잘 자랍니다.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 일주일 쯤 그늘에 놓아 사들시들할 때 물이 잘 빠지는 흙에 심어 번식 시킵니다.
6. 실버 카펫(Silver carpet): 잔디 종류로 그라운드 커버로 쓰이는데 흰색과 밝은 녹색이 섞여 있는데 물을 조금만 주어도 되고 밝아도 잘 자라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ians Company

3700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ageLOC™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OVERED CALIFORNIA**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생명보험, 은퇴연금, 주택보험, 건강보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May Queen**

**Helen**  
원장  
Cell: 562.315.3090

BUS. HOURS:  
9:00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Tel: 714.228.9001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은 부를 때마다 구절구절 은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비롯하여 ‘이 쓸데 없는 자’ 같은 피조물의 한계를 나타내는 구절, ‘난(도저히) 알 수 없도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백하는 대목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듯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가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강소천(1915-1963) 선생이 임종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길 이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1:12) 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즉,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가 의탁한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이 마지막 구절인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외침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대니얼 휘틀’ (Daniel Webster Whittle, 1840-1901) 목사가 지었습니다. 그는



‘무디’ (Dwight Lyman Moody, 1837-1899) 목사와 더불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 사업가입니다. 1877년부터 무디 전도단에서 작곡자 ‘제임스 맥그라나한’ (James McGranahan, 1840-1907) 과 음악을 담당하며 미 전역에서 부흥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소령으로 참전하던 중 한쪽 팔을 잃은 불구의 몸이 되었음에도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휘틀목사가 작사한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세편이나 더 실려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183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358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작곡은 휘틀 목사와 함께 전도단에서 일한 ‘맥그라나한’ 목사가 했습니다. 그는 원래 오페라 가수로 촉망받던 유명한 테너였습니다. 휘틀이 전도단에 가입하기 전 ‘맥그라나한’ 목사는 2살 위인 필립 블리스(Phillip Paul Bliss 1838-1876)와 이미 무디 전도단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6년 12월 19일, 절친한

친구인 블리스는 불의의 사고로 충격적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타고 가던 기차가 20 미터가량 절벽 아래 강물에 떨어져 아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맥그라나한은 이 비보를 듣고 사고현장으로 달려 갔으나 시신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현장에 온 휘틀 소령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은 시카고로 돌아오면서 참혹한 사고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감당하기 힘든 불행한 사고였지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생애를 온전히 주께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휘틀은 블리스를 대신해 무디 전도단의 부흥사가 되었고, 맥그라나한 목사는 오페라계를 떠나 전도단에 합류하며 의기투합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외에 수많은 찬양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순수 찬양을 부르며 미국은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에까지 나가 전도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5년 8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헬렌,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서미숙, 서세건, 이하나,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운영, 최민애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운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